

전북대 카페 '아로미마실' 장애인 고용유지 '엄지척'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여건에도 따뜻한 동행 실천

전북대학교 장애인 표준사업장 카페 '아로미마실' (대표 배준수)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 고용 유지 실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아로미마실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과 대학 내 복리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북대 뉴실크로드

센터 옥외 공간에 마련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카페다. 이곳에서는 전주맞춤훈련센터에서 전문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12명의 장애인 직원이 직접 만든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비

대면수업과 매장 내 음용 금지 등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의 사업장에서는 직원을 줄이거나 무급휴직을 권고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다.

최근 장애인 고용 안정 캠페인 '이기자 코로나 19, 자기자 장애인 일터'에도 전 직원이 동참해 착한 소비를 이끌며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유지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에서 릴레이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종사자들도 정상화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다양한 판매 전략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배준수 대표는 "매장 내 음용 금지와 비대면 수업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장애인 사업장인 만큼 이들과 동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으로 장애인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장애인 표준사업장 카페 '아로미마실' (대표 배준수)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 고용 유지 실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17~18일 · 23~25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17~18일, 23~25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중금속 및 GMD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 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학교 급식 식재료 중 수산물, 지역산 가공식품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유해물질 기준 초과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을 차단하고 불량 식재료를 납품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조사는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 산지 출하단계 및 유통단계에서부터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며, 시료 수거는 해당시도 소유자(생산자) 임회하에 학교, 교육(지원)청 또는 검사기관 담당자가 직접 채취해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결과 후 분석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비대면 수업' 10월 17일까지 4주 연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 기간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됐던 비대면 수업을 10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고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

염 방지와 구성원 안전을 염두한 조치다. 이에 따라 10월 17일까지 이론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학본부 승인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대학원 수업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대면수업을 허용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는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개선을 통한 교수-학생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했다.

또한 외부 동영상은 전적으로 활용하거나 과제만으로 이뤄지는 수업을 금지하고, 주당 1시간 이상은 실시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은성 기자

감성·우정 나누며 인성 기른다

서수초, 인성함양프로그램 호응 커



서수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2020 감성 그리고 우정의 설렘 서수초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서수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2020 감성 그리고 우정의 설렘 서수초 인성함양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긴 호흡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성 그리고 우정의 설렘'은 교사

와, 내 손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꽃꽃이 프로젝트', 소통하는 학교 '학교에 비한다'가 있다. 또 매주 한 명의 학생에게 전교생이 쓰는 편지 '내 마음을 전해요', 예쁜 말 쓰기 '바른 언어 사용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2학기 친구사랑 주간을

맞아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내 안에서 이뤄지는 차별, 혐오의 창을 여는 '인권교육과 친구를 알아가는 친구사랑 카드 만들기' 활동이 이뤄졌고, 레고 키트 만들기를 통해 우정을 다지며 서로 도와가며 완성하는 협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의 시선을 땀 수 없는 갖네버스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서로서로 존중해요' 인형극을 보며 장난으로 한 일이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게 해 학생들이 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2학년 이정우 학생은 "학교에 오는 것이 정말 즐겁고 또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지는 등 학교에 오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김신철 교장은 "2020 감성 그리고 우정의 설렘을 통해 서수초 학생들의 얼굴이 더욱 밝아지고 학교에 웃음소리가 가득하다"며 "서수초교육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활기가 넘치고 행복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서수초등학교는 모든 행사와 교육활동에 철저한 소독과 방역체제로 코로나19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김미정 교수(치위생과 학과장)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전북교육청 참가자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 전북 수학용어말하기한마당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수학용어말하기 한마당은 학생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에서 수학을 주제로 기본개념 및 원리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참가 대상은 도내 소재 초(4~6학년)·중·고 학생으로 1인 또는 2인(같은 학교·학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수학 용어·기호·장리·법칙 등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참가자지원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실생활 활용 사례 등과 연계해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본선은 10월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학을 실생활 활용 사례 등과 연계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자리"라면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치위생과 원격수업 우수사례 선정

전주비전대학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전문대학 1학기 원격수업 우수사례에 치위생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치위생과(학과장 김미정)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생의 건강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수업(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 동영상 콘텐츠 제공)을 확대 운영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신속하게 대응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혼용된 블렌디드 러닝에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입학 수 있도록 실행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치위생전문지식의 습득(이론교과)은 학생들이 시간 제약 없

이 언제나 청강할 수 있도록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관계형성의 방법 등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의 협업 활동을 체득하도록 동행,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했다.

김미정 학과장은 "코로나19로 미래 대학의 교육여건을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교육 혁신으로, 온라인 강의 인프라를 구축, 전체 학과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치위생과 구성원들이 무사히 1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